

# '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1.20	동신대학교 세미나실	9/12	4	1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김영신·노동일·송경용·심상돈·오광호·임동훈·조경완·최정욱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윤근수(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경영심의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4	5	2	0	11	0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0	0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뉴스데스크> ‘30년 만에 제한급수 현실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 제시 부족 아쉬움	-<뉴스데스크> 물 사용량 감소했지만 아직 멀었다(12.5), 광주전남 물 부족..정부 대책 시급(11.22), 걸림돌 많은 식수원 확보 ‘비상’(11.21)	’22.11.
”	‘최악의 물 부족 위기..제한급수 가나?’ 보도, 기후 위기에 대해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발전 바람	<뉴스투데이> 제한급수 코앞에(11.24), <시사인터뷰 오늘> 광주지역 가뭄 실태와 대책은?(11.25), <본방을 보자> 특명! 사라지는 물을 지켜라(12.6), 비 한 방울도 아껴쓰자!(11.30) 방송 조치	”
”	<시사 ON>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자막, 도표 활용 부족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인터뷰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다루지 못해 아쉬움	-편성·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교양	<광주MBC 보다>, 음식 소개 시 특정 매장 광고로 보일 수 있어 유의 필요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국밥을 먹는 장면이 길게 나와 지루한 느낌이 들었음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방송 시작 후 12초간 음성이 나오지 않음. 믹싱, 편집 등 세심한 확인 필요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리포터의 춤사위 부적절했음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내 손안의 마한>, 김홍도의 풍속화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해 마한이 조선시대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줬음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사전점검 등 유의 권고 조치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싱어송라이터 특집 편, 출연자 멘트 추가 등 통해 관객과 소통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사전점검 등 제작 시 의견반영 권고 조치	”
”	<문화콘서트 난장> 싱어송라이터 특집 편, 관객 의자 접이식인데 커버를 씌우거나 교체 필요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반영 권고 조치	”
총 건수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30년 만에 제한급수 현실화’ 보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 제시 부족 아쉬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키며 물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음. 아울러 공동주택의 수압 조정과 수도물을 적게 쓰면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등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음	○		
”	‘최악의 물 부족 위기..제한급수	단기적으로는 내년 봄에 다가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가나?’ 보도, 기후 위기에 대해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발전 바람	수 있는 제한급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 현상이 기후변화의 결과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시사 ON>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자막, 도표 활용 부족 아쉬움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록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보조 장치들을 적극 활용할것음	○		
"	<시사인터뷰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다루지 못해 아쉬움	우리 지역의 이슈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음. 추후 국가적 이슈는 다양하게 다루도록 하겠음	○		
교양	<광주MBC 보다>, 음식 소개 시 특정 매장 광고로 보일 수 있어 유의 필요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주지하겠음	○		
"	<본방을 보자>, 국밥을 먹는 장면이 길게 나와 지루한 느낌이 들었음	먹는 장면을 줄이고 음식 소개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방송 시작 후 12초간 음성이 나오지 않음. 믹싱, 편집 등 세심한 확인 필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리포터의 춤사위 부적절했음	주의하도록 하겠음	○		
"	<내 손안의 마한>, 김홍도의 풍속화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해 마한이 조선시대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줬음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고대 마한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 적절했는지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하겠음	○		
연예오락	<문화콘서트 난장> 싱어송라이터 특집 편, 출연자 멘트 추가 등 통해 관객과 소통	추후에도 이런 방식의 특별한 큐레이션 제작을 하도록 하겠음	○		
"	<문화콘서트 난장> 싱어송라이터 특집 편, 관객 의자 접이식인데 커버를 씌우거나 교체 필요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하고 검토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11월)

일시	2022. 11. 16. 수. 오후 5시	장소	동신대학교 세미나실
참석자	위원회	고아라, 김영신, 노동일,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오늘은 송경용 위원님의 초청으로 이곳 동신대학교에서 시청자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멀리까지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역대학에 관한 관심을 넓히고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 고아라 위원 : -<뉴스투데이> 전남 ‘공공배달앱’ 이번에는 성공할까를 관심 있게 봤다.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는 단연 배달업이다. 정부 지원을 통한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브랜드화된 배달앱의 단점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 외에도 광주 리본택시, 먹깨비 등 점점 지역만의 개별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뉴스보도를 통해 소비자들도 매우 긍정적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라이브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MBC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사운드 및 전체 구성이 훌륭하다. 11월 6일 싱어송라이터 특집 출연자들의 사복 의상이 관객으로서 기대하는 뮤지션의 모습을 담아내기엔 자칫 평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출연자들의 중간중간 멘트를 추가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끌어내는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추가한다면 좋겠다. 현장 관객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뮤지션의 음악에 더욱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출 때 의자가 팔걸이가 없는 접이식 의자여서 의자 커버를 씌우거나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 보다> 프로그램은 광주MBC가 제작한 텔레비전, 디지털콘텐츠 가운데 우수한 내용을 모아 주1회 60분간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생활, 문화, 음식, 행사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를 모아 유익하고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전문 리포터들이 다소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쾌하게 진행하며 이끌어 주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유쾌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프로그램 제목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잘 맞지 않아, 프로그램의 제목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유추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타사 프로그램의 ‘생생정보통’ 등과 같이 제목만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특정 매장의 광고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식과 음식을 만드는 과정 등에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 송경용 위원 : -<뉴스데스크> 11월 9일 방송에서 30년 만에 ‘제한급수’ 현실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1994년 당시 제한급수 상황이 보도된 뉴스 영상과 함께 보여주셔서 더욱 와닿았다. 노후 된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는 장면에서 수도관에서 불필요하게 흘러나가 땅으로 스며드는 예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광주에서 쓰이는 대부분 물이 가정에서 쓰이며, 이는 전체 사용량의 68%에 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놀랐다. 또, 동북댐과 주암댐의 고갈 시기를 자막으로 간단히 띄워주어서 보기 편했다. 마지막에 수압 조절이나 빨래 횡수 줄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이 말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제시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13일 방송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뉴스였는데 가장 중요한 수능 날짜를 말로만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아쉬웠다. 중요한 날이므로 화면에 날짜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수능을 정리하는 법도 알려주

어 많은 수험생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 같았다. 또한, 막판 변수는 코로나19라고 한다.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전화번호를 크게 띄워주어 혹시 모를 코로나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인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았다.

-유튜브 뉴스본방을 보면 3:47부터 6:01까지 차량이 보행자를 침범하여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반사판과 철망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으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을 수 있었고 많은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좋았다.

- 심상돈 위원 : -<이태원 참사에 온 국민이 충격.. ‘또’ 극심한 트라우마> 뉴스에 관한 의견이다.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 사회 전체가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기사라고 판단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가 원인이 되었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범국가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던 사건에 대한 고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 <최악의 물 부족 위기.. ‘제한급수’ 가나?>는 가뭄으로 인한 동북호의 저수량 상태에 관한 기사로 지역적인 가뭄을 잘 설명했다. 물 부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 위기,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국지적인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할 기회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시사인터뷰 오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야당 목소리로서 신현영 국회의원이 출연했다. 그날 참사 상황과 예방 할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잘했다. 야당의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소재에 너무 치우친 면이 있다. 국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ON>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도체특화단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줘서 좋았다. 특히, 도입부에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특성과 차이점 설명 시 도표를 활용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본 회차의 주제인 ‘반도체특화단지’의 혜택 및 효과에 관한 내용도 자막이나 도표를 활용해 표기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광주, 전남의 입지 경쟁력을 부지, 용수,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서 좋았다. 광주, 전남이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최근 광주의 큰 문제인 물 부족 사태에 관한 내용을 다뤄줘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가 동북댐 저수율 현황에 관해 설명 시 간단한 그림을 활용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해 수도 밸브 수압 저감, 양치컵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방안들을 소개해줘서 좋았다. 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도 내년엔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광주시민들에게 물 부족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 임동훈 위원 : -<테마기행 길> 전라북도 정읍 편에서는 정읍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먹거리를 소개해주었는데 이 중에서 내장산의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눈이 즐거웠다. 또, 내장산 이름의 유래와 함께 내장산의 4계절을 보여주는 장면은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직접 방문 하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다. 추가로 ‘테마기행 길 여행 코스’를 주제로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유튜브에 함께 올리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젊은 층의 유입으로 조회 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9일에 방영한 <본방을 보자> 두 번째 코너에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물부족’에 대해 원인부터 저수율 현황, 심각성,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좋았다. 또, 저수율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댐의 그림을 활용해 작년 저수량과 올해 저수량을 표시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좋았고, 그림 뒤 실제로 수위가 낮아져 황폐화된 댐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났다. 그러나 댐의 영상 중간중간에 강물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내용과 동떨어져 설명의 몰입감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세 번째 코너 <월간 본술랭 가이드>에서는 ‘국밥’을 주제로 다뤘는데 추워지는 날씨와 잘 어울리

는 주제 선정이었던 것 같다. 특히, 광주에서 여러 지역의 전통 국밥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음식 소개와 더불어 국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 지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최정옥 위원 : -<본방을 보자> 10월 26일에는 방송 시작하고, 12초간 MC들 음성이 방송되지 못하였다. 10월 27일 김하수 청도군수의 청도 반시 축제에 대한 소개말이 있었는데 목소리와 외부소리 음향조절에 실패해서 듣기 불편했다. 방송 믹싱 및 편집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11월 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여서 무거운 분위기였다. 모든 방송에서도 추모 기간에는 방송도 선별해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방송된 남이섬 단풍 숲 소개가 있었다. 오프닝 음악부터 리포터의 춤사위까지 부적절해 보였다. 11월 3일 줌인노래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분위기여서 무거운 분위기여서 결방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근데 MC들의 코멘트나 자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기간 줌인노래방은 결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큐멘터리 내 손안의 마한>은 광주MBC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작 방송하고 있는 마한에 관한 이야기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와 영감을 줘서 꼭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이번 <내 손안의 마한> 역시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했다. 그런데 중간에 마한의 삶을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장면이 있었다. 마한이 마치 조선 시대의 삶과 비슷한 것처럼 김홍도의 풍속화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투, 갓, 의복 등은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과 관련된 것인데, 마한의 삶이 유교 사상과 밀접한 조선 시대의 삶처럼 묘사된 것은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시사인터뷰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은 우리 지역의 이슈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가적 이슈는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음식 소개 시에는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내 손안의 마한>에서 조선시대 풍속화를 고대 마한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타 저희 프로그램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검토하여 향후 제작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수돗물의 68%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키며 물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수압 조정과 수돗물을 적게 쓰면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등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봄에 다가올 수 있는 제한급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이 기후변화의 결과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막, 도표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관해서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수록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보조 장치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에도 광주MBC에 애정을 갖고 봐주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 수고하셨다. 끝.